

# 안토니오 기수와 환상 호흡...최강마 등극

1200m 넘겨 놓고 선두로 치고나가 청담도끼 등 제치고 2분27초6 선착을 최고의 말 뽑는 연도대표마 예약



8일 서울경마공원 제9경주로 열린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문학치프와 안토니오 기수. 문학치프가 9월 코리아컵에 이어 그랑프리까지 제패하며 2019년 최고의 말을 선정하는 연도대표마 등극이 유력해졌다.

경주마 문학치프(수말, 4세)가 매년 최고의 말을 선정하는 연도대표마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문학치프는 8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제9경주로 열린 올해 마지막 대상경주인 MBC스포츠플러스 그랑프리(GI)에서 우승했다. 9월 8일 국제대회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지 3개월만이다.

그랑프리는 핸디캡 특별경주로 1982년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현존하는 대상경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서울과 부산경남 경주마 중 그해 맹활약한 3세 이상 경주마들이 국내 최장거리 2300m에서 경쟁한다. 출전자격도 까다롭다. 1월부터 11월까지 주요경주에서 높은 승점을 거둔 말에게 우선적으로 출전자격을 부여한다. 올해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서울과 부경에서 각 5두씩, 10두가 총 상금 8억 원을 놓고 우승 경쟁을 펼쳤다.

서울과 부경의 자존심 싸움도 관심거리였다. 그동안 그랑프리는 서울보다 부경과 인연이 깊었다. 서울과 부경이 함께 출전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부경 경주마가 7승을 챙겼다. 2017년 파워블레이

드, 2018년 트리플나인 등 최근 부경 경주마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문학치프는 그동안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었으나 11월 2일 문 기수의 낙마사고로 이번 그랑프리에는 안토니오 기수와 출전했다. 지난해 85승으로 최다승을 기록한 안토니오 기수는 문학치프의 주행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7번 게이트에서 경주를 시작한 문학

치프는 초중반 4~5위권에서 전세를 역전할 기회를 노렸다. 결승선까지 1200m를 남겨놓은 지점부터 승부사 본능을 드러내며 단숨에 선두로 올랐다. 선두를 달리다 추격을 허용한 청담도끼 역시 저력을 발휘하며 약 700m 가량을 문학치프와 치열한 경쟁을 했다.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문학치프는 막판 역전을 위해 힘을 비축하던 샬로커와 부경의 자존심 투데이의 추격을 뿌리치

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샬로커와는 1과1/2 마신 차(3.6m). 경주기록은 2분27초6로 지난해 문세영 기수의 기록을 1초 가량 단축시켰다.

올해만 무려 다섯 번의 대상경주를 우승한 안토니오 기수는 "문학치프는 훌륭하게 조교된 말이다. 문세영 기수의 조언을 통해 말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블루치퍼 '두바이월드컵 카니발' 출전

미국 브리더스컵 입상마 블루치퍼 등 한국 경주마 4마리가 1월 2일 경마 월드컵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에 출전한다. 두바이레이싱클럽에서 주관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메이단 경마장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마대회다. 10주간 두바이월드컵 카니발(2020년 1월 2일~2월 27일)과 준결승 격인 슈퍼세터데이(3월 7일), 결승전 성격의 두바이월드컵(3월 28일)으로 치러진다. 블루치퍼 외에 11월 17일 국제신문배 대상경주에서 우승한 백문백담, 유일한 국산마인 투데이, 장거리 경주의 강자 그레이팅크 등이 두바이레이싱클럽으로부터 최종 출전 확정 연락을 받았다. 1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4일 두바이 현지 마방에 입사한다. 네 경주마는 각 2개 경주 이상 출전 예정이다.

## 한국경마 경주실황 수출국 칠레 확장

한국마사회의 경주실황 수출사업이 아시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에 이어 남아메리카의 칠레로 영역을 확장했다. 경주실황 수출사업은 국가 간 경주를 실시간 중계하고 이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비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사업이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경마 실황 수출 사업을 진행해 올해 미국, 호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경마선진국 11개국에 수출 및 현지 발매를 완료했다. 칠레는 세계 경마시행국 중에서 경마·말산업 최고 수준인 PART I 등급에 해당하는 나라로, 한해 말 생산두수가 세계 13위, 경주시행수가 세계 7위다.

## 다이아삭스 vs 글로벌캡틴...1등급 단거리 최강마 가린다

12월 15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서울 경마공원 제 11경주로 1등급 경주가 펼쳐진다. 단거리 우수마를 가리는 1200m 경주로 총 상금은 1억1000만 원이다.

●**다이아삭스**(수말, 5세, 미국, 레이팅 110, 김창식 마주, 지용철 조교사, 승률 13%)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2위에 오르며 경마팬들의 '믿을 말'로 거듭났다. 마지막 직선주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 추입하

는 스타일이다. 3월 휴양에서 돌아와 1등급 경주와 대상경주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해 레이팅이 110까지 올라갔다. 장·단거리 모두 강하지만 최근에는 단거리에 집중하고 있다.

●**야호스마트켓**(거세마, 4세, 한국, 레이팅 97, 이태식 마주, 박재우 조교사, 승률 50%)  
9월 1군으로 승급 후, 10월 첫 경주에서 다이아삭스를 3/4마신 차(1.8m)로 제치고

승리하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올해 출전한 모든 경주가 1200m이며, 1위 4회, 3위 1회, 4위 1회로 모두 순위상금을 획득했다. 처음부터 선행으로 치고나가 승기를 잡는 것이 관건이다.

●**글로벌캡틴**(수말, 3세, 미국, 레이팅 107, 장재형 마주, 정호익 조교사, 승률 60%)  
지난해 데뷔한 후 줄곧 단거리에서 집중하며 1위 6회, 2위 1회, 3위 2회로 좋은 성적

을 거두었다. 6월 SBS스포츠스프린트에서는 10번이라는 바깥 번호를 받았는데도 3위에 입상했다. 코리아스프린트에서는 7위를 하며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

●**커버걸저스티스**(암말, 3세, 미국, 레이팅 84, 이미양 마주, 송문길 조교사, 승률 44.4%)  
9월 1200m에서 가운데권의 선행강공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외곽에서 빠르게 달려들며 순식간에 8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이번 경주는 1등급으로 맞는 첫 단거리 경주로, 부담중량이 낮은 점을 활용하여 복병이 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 축구팬 69% “맨시티, 홈팀 아스널에 승리”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중간집계 EPL 7경기·라리가 7경기 대상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7경기 등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아스널-맨체스터시티(13경기)전에서 팬들의 69.42%가 원정팀 맨체스터시티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승부 예측은 18.21%로 나타났고, 홈팀 아스널의 승리 예측은 12.37%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맨시티는 승점 32(10승2무4패)로 리그 3위, 아스널은 승점 22(5승7무4패)로 9위에 머물러 있다. 아스널은 브라이트에게 충격적인 1-2 패배를 경험했지만, 웨스트햄전에서 3-1 승리를 거둬 자신감을 회복했다. 리그 득점 공동 2위(11골) 오바메양이 매 경기 활약하고 있지만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맨시티도 가시밭길이다. 현우승 경쟁자인 리버풀과 레스터시티에게 리그 1, 2위를 내줬기 때문이다. 다만 공격력은 EPL

최고다. 세르히오 아구에로, 라힘 스타링 등 화려한 공격진을 보유한 맨시티는 팀 최다 득점(44점)을 기록하고 있다.

안방에서 본머스와의 만남 첼시의 승리 예측은 82.85%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무승부 예상과 본머스 승리 예측은 각각 9.87%와 7.28%를 기록했다.

프리메라리가는 아틀레틱 빌바오가 에이바르를 물리칠 것이라는 예측이 77.93%를 차지해 가장 높은 투표율을 선보였다. 무승부 예측은 14.41%, 에이바르의 승리 예측은 7.66%로 가장 낮았다.

8일 빌바오가 베티스에 2-3 패배를 경험했지만 에이바르(16위)는 4연패 부진에 빠져 있어 사정이 좋지 않다. 더불어 양 팀 가장 최근 맞대결인 2월 23일 경기에서도 빌바오가 1-0 승리해 큰 이변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빌바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원정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만나는 선두 바르셀로나도 75.77%를 기록해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무승부 예상과 소시에다드의 승리 예측은 14.50%와 9.73%로 집계됐다. 승무패 43회차는 14일 오후 8시 50분 발매 마감하며, 경기 종료 후 결과가 발표된다.

## “스포츠토토는 100원부터, 소액이 진짜 재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적은 금액으로 건강한 스포츠토토 참여문화를 만들고 있는 스포츠팬들에게 다시 한 번 노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체육진흥기금 마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는 국내 스포츠 팬들의 대표적인 스포츠레저 게임이다. 과몰입 등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1인당 구매한도를 10만원(온라인 5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소액 참여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실제로 100원부터 참여가 가능한 스포츠토토는 얼마든지 적은 금액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한도 내에서도 스포츠 관전의 재미를 높여줄뿐만 아니라, 적중했을 경우 소소한 용돈벌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는 한도의 제한이 없고 사행성과 중독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게임으로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를 만드는 주변이 되고 있다. 불법스포츠토토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이용한 사람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불법스포츠토토는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합법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건전한 이용이 해당이 될 수 있다.

## 건전화 캠페인 영상 보고 정답 맞으면 커피 드려요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스포츠토토 건전화 캠페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 방문, 건전한 스포츠토토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준비된 캠페인 영상을 시청한 후 친구들에게 해당 영상을 전달하고 영상 속 4가지 핵심 키워드 정답과 해시태그를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캠페인 영상을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WITH)'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고 건전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FAIR)', '소액으로 즐기는 소소한 행복(FUN)',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원(PLAY)'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이벤트는 25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1일 스포츠토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된다. 이벤트를 완료한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카페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한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